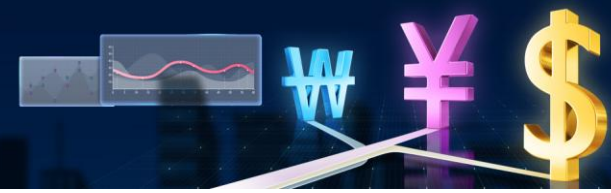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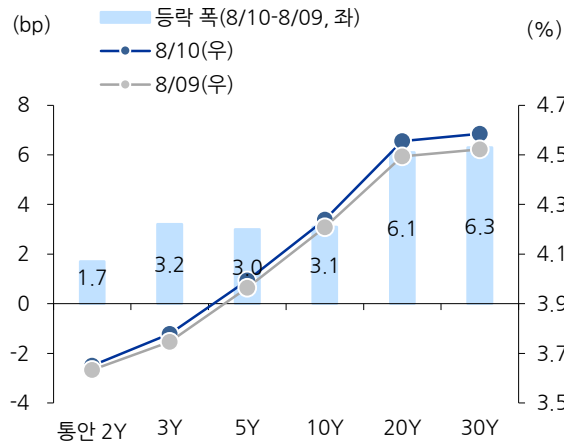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8/10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78%	3.2	3.6	82.5
	한국 국고채 10년물	4.239%	3.1	-2.5	85.4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6.1	46.2	52.2	43.2
	3년 국채 선물(KTB)	103.34	-5.0	4.0	-210.0
	10년 국채선물(LKTB)	106.25	-9.0	39.0	-667.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243%	4.6	0.3	77.1
	미국채 10년물	4.708%	6.1	3.0	54.0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6.5	45.0	43.8	69.6
	독일국채 10년물	3.187%	4.3	1.7	33.2
	호주국채 10년물	4.970%	-1.4	4.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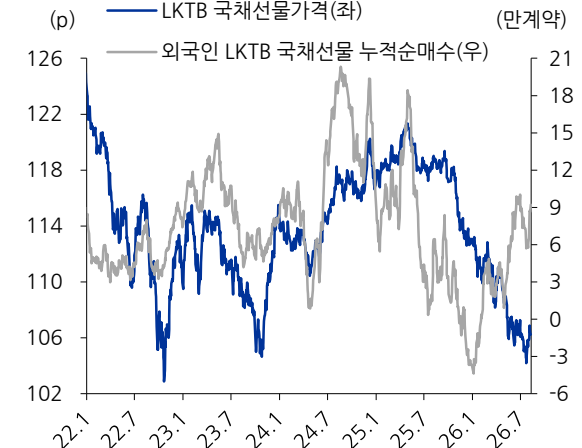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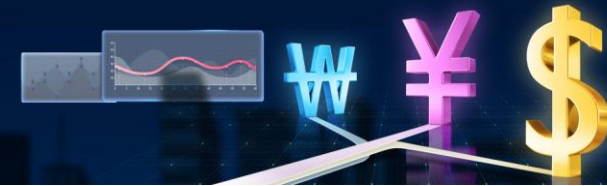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 초장기물 급등.
- 전구간 금리 상승했지만 초장기물 상승폭 확대. 개장 초 전일 미국 고용 쇼크 여파로 금리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 국내 특별한 요인은 없었으나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매도한 것이 영향.
- 곧 있을 유상대 한은 부총재의 기자회견담화에 대한 경계심도 영향.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발동. 미국 CPI 등 물가지표 앞둔 경계심도 영향.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국제유가 급등 및 물가지표 경계.
-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미국도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맞섬.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지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한 영향에 금리 전구간 상승.
-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CPI와 PPI를 앞둔 경계심도 영향. 최근 고용 쇼크로 인해 물가지표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기 때문. 최근 FOMC에서 인상 의견을 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위해 한번의 인상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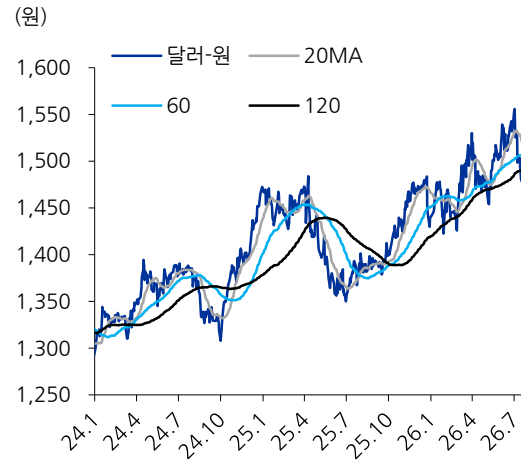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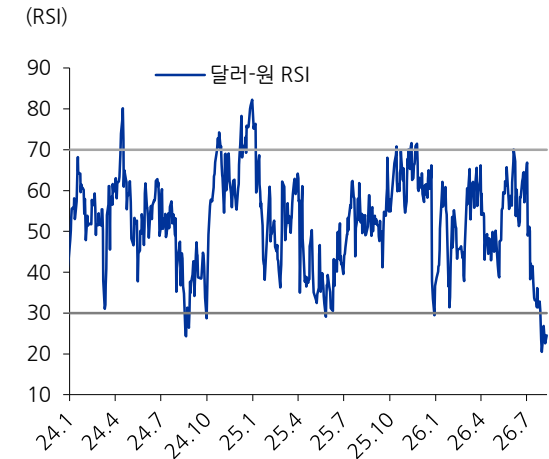
(단위: %, \$)

	8/10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18.40	0.2%	-0.8%
	달러지수	99.81	0.2%	-0.1%
	달러/유로	1.15	-0.1%	-1.7%
	위안/달러(역외)	6.75	0.0%	-0.2%
	엔/달러	159.25	0.9%	1.3%
상품	달러/파운드	1.35	0.1%	0.6%
	해알/달러	5.11	0.6%	-7.4%
	WTI 근월물(\$)	82.13	5.1%	2.2%
	금 현물(\$)	4,390.17	1.1%	8.3%
	비트코인(\$)	64,260	-1.3%	0.3%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결제 수요와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에 하단 지지 보이며 +2.30원 상승한 1,418.40원 마감(야간 1,418.30원).
-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지표 부진으로 8/7일 야간거래에서 1,408.50원으로 하락 마감했으나, 이날 수입업체 저가매수 유입되며 되돌림 양상.
- 아시아장 달러가 강세 보였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1.5조원 순매도(3거래일 연속, 총 -5.6조원)하며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
- 한국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가 달러-원을 누르는 가운데, 1,400원대 환율 저가 인식과 중동 리스크 해소 지연이 환율 하단 지지하고 있음.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는 美 CPI, 중동 소식, BOJ 기조 등 대외요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불안에 상승(DXY +0.2%).
- 이란이 지난 8일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또한 이란의 과거 공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발언.
-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WTI +5.1%)하면서 미 국채금리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
- 美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중동 리스크가 달러 하방을 지지하고 있음. 시장이 연준 9월 인상 가능성을 50%로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美 CPI까지 확인한 이후 9월 결정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되고 달러가 유의미한 변화 보일 것으로 예상.